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왕국절 제1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 경배의 찬송	47. 주여 우리 무리를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고단한 일상에 지친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이라곤 부끄러움과 후회뿐입니다.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을 찾아가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십시오.

주님, 교만한 마음은 꺾어주시고, 영적인 나태와 우울은 물리쳐주십시오.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약속과 희망과 영광의 분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희망을 노래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땅의 품에 안겨 겨울을 나는 씨앗들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66:20
◆ 교 독 문	45. 요한복음 3장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박인혁 선생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성경봉독	마19:16-26
	엡5:8-14
찬 양	허정운 권사
말 씬	당연하지!
	김재흥 목사
	빛을 향해 고개를 들라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헌금봉헌 <성가대 : 남성 사중창단>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제 자신의 허물과 약함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삶과 작별하십시오. 빛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생명의 열매 소담하게 맺으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데 주님은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어둠에 골똘하기보다는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속에 깃든 어둠을 주께 바치오니 그것을 연료로 삼아 빛을 창조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지 이야기(2)	신명기 강해(22)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주원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윤정덕 장로	인도자 최철수 집사

11월	영접위원	이용한	조문규	이재구	조병주	장혜숙	백혜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김인걸	최종원	곽해자	이순정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불어 설운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님아 선운사 동백꽃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송창식의 <선운사>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괜한 슬픔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활짝 피기도 전에 눈물처럼 후두둑 지고 마는 동백꽃을 보면 왠지 애련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짐짓 동백꽃보다 늘 푸른 동백(冬柏)나무 앞에 눈길을 맞추곤 했습니다. 길은 초록의 질감과 양감이 왠지 강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백꽃 없는 동백나무는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목이 꺾이운 듯 툭 떨어져 땅바닥을 튕구는 동백꽃을 보면 다하지 못한 생에 대한 안쓰러움에 목이 말라 옵니다.

지난 토요일(11월 13일) 감리교회의 소중한 일꾼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애달프고 원통하고 기가 막힌 죽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희동 목사, 그의 이름을 그리움으로 불러봅니다. 그는 순백의 사람이었습니다(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픕니다). 그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수줍음 많았던 사람, 하지만 그의 내면에 지존 예수 혼 때문에 어느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동백꽃 한 송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글을 뒤적이다가 한 대목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살아 있다가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맑아져 내 인생의 나무에 봄이 오면 황홀하고 눈부신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평생 내 어두운 마음속에 갇혀 있다면,
나의 꽃 몽우리는 꽃 한 송이 피워내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요 절망의 삶이다.”

그는 스스로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
았습니다. 무심히 부는 바람결에도 부끄러워하고, 흔들리는 풀잎 앞에서
도 서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꽃이었습니다. 그의 향기는 이미
한반도 삼천리 고을을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의 빈소를 찾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향기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어 울먹이던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가 애송했던 정호승의 시 <봄 길>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는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분명 저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온 영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만드신 길, 그가
뒤따라간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의 사람이 될 희망을 품고 그를 떠나
보냅니다.(석)

쓰러진 나무

저 아카시아나무는
쓰러진 채로 십 년을 견뎠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 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 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잡목 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에게로 굽어져 간 곡선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워낸
저 연초록빛 소름,
십 년 전처럼 내 팔에도 소름이 돋는다 (나희덕)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방현복 김중훈 안경숙 구명자 방문성 박혜경 박창운 허정윤
 김철수 유영남 홍순구 안홍숙 김준호 곽혜자 이한림 김명희 김근중
 정옥영 노정숙 이광용 형인순 배삼순 김혜권 고사일 최영선 왕성환
 김순배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박준희 이기분 이정은 김미순 이갑재 최동운 박찬정
 임 영 정경례 조동길 배부례 정진경 허광식

감사헌금:

김인걸 문영혜 안성호 김상태 성가대

생일감사헌금: 조병무 김승현 김수진 김서영 임승동 한창희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노 용 래	박 영 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재 문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문 복 순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오 성 희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박 현 우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김 정 섭	이 영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향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2·4남선교회와 2여선교회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오후집회** : 성지에 다녀온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과 유대광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 **농산물 판매** : 지난 주일에 판매한 유기농 쌀과 콩이 조금 남았습니다. 생명 세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강절** : 오늘은 오순절기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됩니다. 29일부터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귀중한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5. **아름다운 원로 모임** : 25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6. **세례입교신청** : 금년도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예비교육에 참여하십시오.
7. **신앙실천** :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김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마련하셔서 우리 삶에 고요함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십시오.

* 지난 주 여선교회가 주최한 바자회 수익금 725,420원은 우이동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집>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지체아들 10여명이 살고 있음)에 전하였습니다.

* 헌화 : 김준호 광혜자 권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